

2/24(목) 신명기 21-25장 전쟁과 질서

이스라엘은 정복하며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.
그러나 이스라엘은 전쟁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군사조직이 아닙니다.
하나님은 그들을 <군대>가 아닌 <백성>이라고 부르십니다(20:2 이하).
이 전쟁은 하나님의 허용과 통제 안에서 진행됩니다.
필요 이상의 살상과 탈취, 잔혹함은 금지됩니다.

방점은 전쟁이 아니라 <정화와 회복>에 있습니다.
땅과 소유의 확장이 아니라 <하나님 나라>건설에 있습니다.
하나님은 징집과 전쟁, 포로에 관한 규정들을 세우십니다(20장, 21:10-14).
전쟁의 폭력과 광기, 전후의 혼돈이 일상에 침범하지 못하도록,
<사람 됨>, 하나님 나라의 <법>을 강조하고 계십니다.

하나님은 전쟁 중에도 질서를 유지하게 하십니다.
나무 한그루, 시체 한 구, 가축 한 마리, 쓰러진 형제, 여성,
전쟁 중(이후)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챙기시고 살피십니다.
하나님의 나라는 죽음과 욕망, 폭력과 기만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.
세워지는 과정 역시도 <하나님 나라> 법대로 진행해야 합니다.

이스라엘은 <하나님 나라>의 국민입니다.
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합니다.
광야생활에서 진영을 늘 거룩하게 유지했듯이,
정복과 정착생활에서도 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.

수많은 전쟁, 참상들을 떠올리며 오늘 본문을 통독해 보십시오.
하나님께서 챙기시며 보호하시는 사안과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.
이 땅에 이뤄야 할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이 또렷이 보일 것입니다.

나는(우리는)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까?

- ❶ 우리의 <전쟁>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?
- ❷ 우리의 <전쟁터>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신명기 21-25장